

돌아오지 않는 '택시 분실물'

일부 기사들 과도한 사례비 요구 횡포 습득한 휴대전화 불법 업체에 팔기도

일부 택시기사들이 택시 안에 휴대 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들에게 과도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일이 찾아 원성을 사고 있다.

회사원 윤모(여·28·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씨는 최근 퇴근길에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깜박 휴대 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를 갖다 줄 테니 5만원을 달라"고 전화를 걸어 온 것이다.

50만원을 주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지난달 20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탔던 한모(40·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씨도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사실을 20분 만에 깨닫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5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며 버렸다. 한씨도 5만원을 주고서야 휴대 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

광주시에 YWCA 소비자 상담실 등에 따르면 '택시'와 관련된 민원 55건 중 '휴대전화 분실' 관련 민원은 5건(9.1%)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승객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습득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두면 '핸드폰찾기센터'(www.handphone.or.kr)를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우체국에 직접 전해주면 신형 휴대전화의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며, 구형은 5천원 상당의 사은

품을 준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영업 중에 가져다준다는 이유와 수고비 명목으로 3만~5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명의변경을 하거나 약 5만~8만원을 받고 무전기 설치 업체에 판매하기도 한다.

불법 명의변경 하기도

택시기사 이모(48·순천시)씨는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약간 손해를 무릅쓰고 가져다 줬지만 수고비도 전혀 안주면서 오히려 타박하는 손님들 때문에 이전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연락이 없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무상 또는 택시비만 받고 돌려주는데 일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기름값까지 5만원 달라"

윤씨는 "불과 10분 만에 광산구 운남동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갔다가 기름값과 운행하지 못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5만원이나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근처에 맡겨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다음 날엔 전화를 꺼놔서 통화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하는 수 없이

■ 택시·버스 분실물 어디서 찾나?

탑승 차량 사업조합 홈페이지 확인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들이 차량 내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엔 가장 먼저 각 사업조합에 맡기게 된다. 사업조합은 이를 취합해 각 회사별로 광주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http://www.kjtaxi.or.kr)·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ht-

tp://www.gjodtaxi.or.kr)·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http://bis.gjcity.net) 분실물 코너에 등록하게 된다.

각 홈페이지 분실물 코너에는 습득일자·품목명, 운행방향과 차량번호·회사전화 번호 등이 적

혀있으며, 전화를 통해 물건의 주인이 확인되면 돌려주게 된다.

탑승했던 차량의 차량번호나 운전기사 이름을 파악해 각 회사 등으로 직접 전화를 하면 확인 후 물건을 돌려주기도 한다.

현재 버스에서 나온 습득물은 지난 5월 이후 242개 물품이 등록돼 있으며, 법인택시는 지난해 3월 이후 78개 습득물과 665개 분실물이, 개인택시는 1천337개의 분실물이 등록돼 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5·18 공원 '웰빙 산책로' 광주 시민들이 즐겨찾는 5·18 기념 공원 산책로가 '웰빙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광주시는 최근 3억원을 들여 딱딱한 시멘트 포장이었던 서구 쌍촌동 일대 5·18 기념공원 산책로 1.88km 구간을 탄력성이 뛰어난 고무 바닥재로 교체 시공했다. 성탄절인 25일 가족들과 함께 공사가 마무리된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부(02)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법무민원상담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노숙소매자문제연구 369-9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교협력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111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가동수사대(성주) 229-0118 (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직번호(26일) 226-7400 법무사회 법률상담(26일) 양자권 370-0600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방학중에도 계속 시행

광주시, 지원 대상 조사

광주시는 학교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겨울 방학 기간 저소득층 자녀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급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급식지원 학생 2만3천804명을 전수조사 중이며 주거 유형, 차량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함께 파악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별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지원 내용과 배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 '기업 사랑운동' 호평

콜서비스제 운영 등 21개 사업 펼쳐

광주시 북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 사랑운동'을 적극 추진, 호평을 받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10월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업사랑 지원체제 구축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기업 사랑운동' 사업을 펼쳐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기업 사랑운동 전담 조직 신설, 기업 사랑 행정지원센터 설립, 경영 및 경제 포럼 운영, 북구 경제아카데미 강좌 실시, 기업 지원 콜서비스제 운영, 기업제품 사주는 날 (바이데이·Buy-Day) 운영, 우수 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 기업 사랑 사이버 홍보관 개설 등 21가지. 지난 1년여동안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 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북구는 지난 11월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제 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 지역경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최근 서울 광진구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기업 사랑운동'이 우수 사례로 발표돼 지역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특히 사업이 분례도에 오르면서 고용 창출과 기업체 수 증가, 수출 실적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 들어 현재 북구의 수출실적은 21억5천38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5천377만원 보다 22.8% 늘었다. 기업체 수는 지난해 332개에서 351개로 5.4% 증가했으며, 고용 창출인원도 지난해 7천979명에서 9천 92명으로 12.2% 늘었다.

북구는 내년도도 중소기업제품 상표 디자인 개발과 본촌산단단지 포탈 서비스 구축, 첨단산업 아이디어제품 전시회,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 광주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 자치구로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lee@kwangju.co.kr

2008 새해 정동진 해돋이 전세열차

1월 1일 (토) 12:00 ~ 1월 2일 (일) 12:00

당일 1인 1석 10만원 (1인 1석 10만원)

(주)대원여영사 ☎ 062)265-7000 / Fax 524-7272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소나는 최합의 가격에 모든 TV, VCR, 비디오키오스크를 기부합니다!!

062)522-2000

미식 미도 확장개업

그 동안 미식미도주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업25주년을 맞이하여 미식 미도사 새로운 분위기, 경쟁있는 기밀요리를 확장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서비스로 명성을 더해 보시겠습니다.

미식미도 레스토랑 개업

승남모임, 기묘·집대모임은 맛있게 미도에서

●단체 20석, 50석 가능 ●동식주차 50대 가능

T. #63234-0001, 228-0106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소나는 최합의 가격에 모든 TV, VCR, 비디오키오스크를 기부합니다!!

062)522-2000